

대구여성가족재단 보도자료

2021.9.3.(금) 이후 보도 희망



제공일자	2021.9.2.(목)
담당부서	여성·안전정책팀
담당자	김민지 부연구위원
연락처	053-219-9924
홈페이지	www.dwff.or.kr

쪽수 : 5 사진 : 4

대구여성가족재단, 온라인 안전지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젠더폭력 우리 모두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등 총 12명 수상 -

-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대구지역 대학의 온라인 모니터링 공모전 '온라인 안전지킴 EYES' 최우수상에 '젠더폭력 우리 모두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등 12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 재학생·졸업생이 참여한 총 22개의 모니터링 보고서가 응모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에는 에브리타임에서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성차별적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젠더폭력 우리 모두가 인지하여야 합니다'와 대학교 블로그, 유튜브, SNS 상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여성다움 강조·성별 대표성 불균형을 지적한 "계명다운' 성평등한 캠퍼스 만들기',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3개가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우수상에 4개 작품, 장려상에 5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3개) 30만원, 우수상(4개) 20만원, 장려상(5개)에겐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2021 여성UP엑스포 여성안전테마관에 전시되며, 추후 개선사례집으로 만들어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대구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dw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대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었다.”며 “최근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젠더갈등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주체적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 온라인 안전지킴EYES 공모전 웹포스터
- 붙임 2 : 온라인 안전지킴EYES 공모전 수상작(요약)



2021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공모전

온라인 안전지킴 EYES

공모자격
대구시민, 또는 대구지역 소재 대학생(휴학·졸업생 포함)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주제
온라인상의 성차별, 젠더폭력,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지역 대학의 홈페이지, SNS(에브리타임, 대나무숲, 블로그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범위
대구지역 대학의 홈페이지, SNS 등에 2019년 1월 이후 업로드된 모든 게시물

공모기간
2021년 8월 2일(월) ~ 8월 16일(월)

결과발표
2021년 8월 27(금) 홈페이지 공지 예정



【최우수상】 젠더폭력 우리모두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게시물(출처 : 대학교 에브리타임)

<p>야한옷이 성폭행을 부추기나?</p> <p>지갑이 가방에서 삐죽 튀어나와있으면 윤리적인 아닌든 도둑의 표적이 되곤 함 야한 옷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옷을 입은 여자의 윤리성과는 아무 관련없지만 입어서 성범죄자의 이목을 끌수도 있다는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p> <p>👍 0 🗨️ 13 🌟 0</p> <p>공감 스크랩</p> <hr/> <p>(삭제) 삭제된 댓글입니다.</p> <p>↳ (알수없음) 👍 1 : 난 그 반례로 드는 사람들이 할머니랑 3살짜리 애도 성폭행 당하던걸요? 하면서 극도로 예외적인 상황을 들길래 신뢰가 안가 18/05/16 00:17</p> <p>↳ (알수없음) 👍 1 : 단순히 여름에 평균적으로 노출이 많으니 여름이 성폭행이 많다고 생각하는건 고정관념 아닐까? 18/05/16 00:20</p>	<p>익명 20/01/27 19:47</p> <p>ㅅㅅㅋㅋㅋ신기한게 내주위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p> <p>여자는 요직에 앉으면 안된다 이런얘기 하는애들 한번도 못봤는데 재들 다 어디숨어있노ㅋㅋㅋㅋ</p> <p>👍 0 🗨️ 6 🌟 0</p> <p>공감 스크랩</p> <hr/> <p>(알수없음) 👍 1 : 그런애들 밖에선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런데서 익명으로 표출하는거임 20/01/27 19:48 👍 6</p> <p>익명 👍 1 : 내 주변에도 한남 이러는 애들 못봄 20/01/27 19:49 👍 2</p> <p>익명 👍 1 :</p>
---	--

○ 비판사항

-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피해자 책임론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요직에 앉으면 안 된다.", "한남" 등은 전형적인 성차별적인 언어표현이다. 대학 SNS 등 여러 곳에서 남녀 갈등 조장,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게시글이 눈에 많이 띈다.

○ 개선방안

- 게시판 별로 분류하여 익명성이 필요한 부분에선 사용하고, 무분별한 갈등 조장 게시글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반익명성을 도입하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성인지갑수성/젠더폭력 등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캠페인이나 공모전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벗어나, 학교 필수과목이나 젠더 교육 필수 학점제 등을 도입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교육받아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최우수상】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 온라인 게시물(출처 : 대학교 에브리타임 새내기 게시판)



○ 비판사항

- 여성과 남성의 얼굴에 대하여 평가하는 듯한 발언이 오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자는 화장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남자는 잘생겨야 한다' 등의 성별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개선방안

- 스스로 외모에 대한 편견과 말을 조심하고, 본인이 외모를 얘기하고자 하는 상대가 자신이거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 익명 13으로 댓글을 달았다. 대학에서 '성평등 교육' 수업을 3시간 들었던 적이 있다. 그때 배운 내용대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고, 상처 받지 않을 정도로 댓글을 달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으므로 많은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확대해가면 좋을 것 같다.